

제8

(2)

(1교시)

- ▶ 생성과 사건의 구분 : ‘불연속성’
- ▶ 사건의 불연속성은 끊어짐이라기보다는 꺾어짐. (특이점 singular point) 한 기계를 특이점들의 계열들의 장으로 볼 수 있다. (계열화)
- ▶ 추상기계 : 매우 역동적인 다이어그램(diagram)을 갖고 있는 것. 이 때의 ‘추상’은 위로, 분류학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으로, 물질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는 추상이다.

▷ 현대 조형문화의 특징

- **조형(造形)** : 형태를 조작하는 것
- **Imagination** : 이미지의 기본인 형(形)과 색(色)을 조작, 각인을 넘어 변형을 시도하는 것. ‘이미지 작용’ (‘조물주’란 표현은 인간의 조형 행위를 반영)
⇒ 이러한 이미지 작용을 물질에 구현하는 것이 바로 조형. 현대 조형문화의 혁명을 사건론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.

▷ 대지예술(大地藝術)

사진13 스미스슨, <나선형의 방파제>

- “그림처럼 아름답다” : 역설적으로 그림 이전의 자연은 아름답지 않음을 함축.
- ‘**있는 그대로의 자연**’이란? : 이미 인간이 개입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다듬기 이전에 널리 있는 문명 속에서의 자연을 뜻함. 즉, 예술적 의식에 의해 가공되기 이전의 자연.
- ‘**포스트모던 사회는 자연이 끝난 시대**’
⇒ 현대 예술은 “그림 같지” 않으려 함. 자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는 시도.
(예, 스미스슨의 ‘솔트레이크 스파이럴 제트’ - 죽은 자연에 조개껍데기 등으로 스파이럴을 장식. 폐기된 공장을 그대로 살려 가공하기도 함.)
⇒ 결국, 자연은 사건들로부터 드러나며, 대지예술은 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 한다.

(2교시)

▷ 역동적 아름다움

- **아드리언 허즈**의 ‘**셸트 방파제**’ : 홍합 껍데기와 하얀 조개들. (관조적 아름다움이 아닌 사건의 아름다움 추구. 공간을 역동적으로 꾸밈.)
⇒ 공간 자체가 사건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다.
⇒ 내면적인 감정과 구분되는 사건적인 변용태(**외적, 역동적, 객관적**)
- 공간은 동시성을 통해 성립된다. : 시선은 동시성을 확보하고자 하므로,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다. (한 주체의 시선아래 대상화됨. 예, 진시황의 군현제) 그러나 시간이란 시선을

벗어난다.

⇒ 시선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곧 근대적 주체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. **송고미**도 이와 관련.(**색면화파**의 예)

▷ 시간의 복권

* 일정 투시도 : 세계가 특정한 주체의 눈길 아래에 존재할 때 성립. 시간이 얼어붙어버림.

* 시간과 변화에 민감한 현대인의 관점, ‘주체의 눈길은 시간 속에서 계속 변화한다.’

- **세잔느** : 하나의 소재를 반복적으로 그림. 본질의 발견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, 그 본질이 시간을 머금고 있다고 보았다. (관점의 변화를 포함시킴. ‘사과’, ‘썸 빅투아르 산’ 등)

사진14 세잔느, <사과> 1878-79

사진15 세잔느, <썸 빅투아르 산> 1885 (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)

⇒ 시선의 복수성과 맞물리는 현상의 복수성을 하나의 화폭에 담았다.

⇒ **현대 조형문화는, 조형문화가 본래 공간적 문화임에도 시간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.**